



##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이나,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자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자랑하기(감사)는 한 주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 WORK

- 1)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 주일설교

제목: 두 사도의 용기

본문: 사도행전 4:13-21절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입니다(누가복음 1:1-4; 사도행전 1:1절). 누가의 직업은 의사이고(골로새서 4:14절), 사도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역자이며(디모데후서 4:11; 빌레몬서 1:24절), 헬라인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확장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파되어나갔는지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구성은 사도 베드로 중심으로 유대인 전도(1-12장)와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방인 전도(13-28장)로 나누어집니다. 본문은 '진정한 용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덜 중요한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복음의 증인으로서 '용기'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합니다(사도행전 3:1-10절). 종교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 하다가 붙잡혀서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며 담대하게 외칩니다(19-20절). 이러한 용기는 권력, 재력, 체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용기'요 거룩한 용기입니다.

## 2. 불의와 잘못에 대해 말 할 수 있는 '용기'

사도행전 3:13-15절에 베드로는 기적 때문에 모여든 군중들을 향하여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고 책망합니다(사도행전 2:36; 3:13-15절). 사무엘하 12:1-12절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고, 부자는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양을 빼앗아 대접한 비유를 말합니다. 이에 다윗 왕이 부자를 비난하며 화를 내자, 나단이 다윗 왕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책망합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의 죄악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처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바로 시인하고, 회개하는 다윗의 용기 또한 큰 용기입니다.

## 3. 인생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용기'

여호수아가 요단강과 여리고 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용기'를 보여줍니다. 인생의 승리를 위한 진정한 용기는, 첫째, 예수님과 함께할 때 생깁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입니다. 둘째, 성령님이 충만할 때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 하였습니다(31절). 셋째,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성도)는 복음 전도를 위한 용기, 불의와 잘못에 대해 대처할 용기, 인생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이웃교회' 신자(성도)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 나눔질문

1.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용기'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 가짜같은 진짜

2016년에 탈북하여 우리나라로 망명한 태영호 씨는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썼습니다. 태영호 씨는 북한의 공사 출신으로 공사는 대사 다음으로 높은 직위의 외교관입니다. 3층 서기실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던 직속 기관입니다. 그가 쓴 책에는 북한의 종교 실상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 평양에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세웠습니다. 일단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 교인 그리고 성경이 있어야 했기에, 그들은 가짜 교회를 세우고는 교회 주변에 사는 공산주의 사상가나 간부의 부인들더러 예배에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다가 진짜 신자가 되어간 겁니다. 게다가 예배당 앞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마저 생겼는데, 이들은 예배당 밖으로 흘러나오는 찬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태영호 씨는 어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늘 '북한 신자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선 가짜 신자 같지만, 내면은 진짜 신자입니다. 한때 북한 관변 조직인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인사들이 남한 목사님들에게 '교회를 많이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데 진짜 신자가 생기는 것을 알고 나서는 부탁하기를 중단했습니다"

책에는 북한이 199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북을 추진한 일화도 나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가 몰락한 후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교황 초청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교황청이 '진짜 신자를 데려와라'라고 하자, 북한은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6.25 전쟁 이전부터 신자였던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신자임을 완강히 부언하던 할머니는 결국 뒷담에 만든 예배 단을 보여주며, **"한 번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느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고받은 북한 정부는 교황 초청 계획을 접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짜 같은 진짜 신자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믿음도 없이 강제로 나와 앉아 형식적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 THINK

당신은 말씀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목장보고서를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요일예배 담당안내					
담당	3월 2일	3월 9일	3월 16일	3월 23일	3월 30일
마을특송	손숙희 권사	이순희 권사	전진희 권사	한선미 권사	안병자 권사
대표기도	행복한	샘솟는	섬김	살롬	온유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3월 5일	3월 12일	3월 19일	3월 26일	4월 2일
본당청소	행복한	샘솟는	섬 김	살롬, 청장년	온유
중식봉사					

## 주요광고

- ◎ 좋은이웃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혜롭고 성숙하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 ◎ 2층 주방공사 및 식당 정리가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으로 잘 마쳤습니다. 2차 교회 대청소는 4월 16(토)에 있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시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월요목양새벽기도회 / 일시: 매주 월요일 새벽 5시 / 마을장,목자,교사,임원은 필참입니다.
- ◎ [세이레 새벽기도회]가 3월 28일(월)~4월 17일(부활주일)까지 진행됩니다.  
1주: 유천형 목사 / 2주: 서민기 목사 / 3주: 김윤석 담임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합니다.
- ◎ 3월 둘째 주일부터 <목장 출결보고>는 마을장을 통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소식

### 환우들을 위한 치유 중보기도

김수차 권사/유수림 권사/김해생 권사/이문형 장로/김진석 집사

김태인 집사/이명옥 권사/한정희 권사/이향숙 사모/유춘자 권사/조병양 집사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당신은 거룩한 교회입니다